

동정

- 회원사
- 관련기관

코오롱정보통신

한국 NCR과 네트워크 서버 총판계약

SO사업 및 종합정보통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코오롱정보통신(주)는 한국NCR(주)과 Entry 레벨(중저가형) 네트워크 서버 국내 총판계약을 지난 7월 15일 단독 체결, 네트워크 서버시장의 본격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다양한 벤더를 확보하여 네트워크 사업력을 강화해 나가게 됐다. 이번에 한국NCR(주)과 System S10, S40 디스트리뷰터 계약에 따라 코오롱정보통신은 고성능, 중저가의 네트워크 서버시장에 본격적인 참여는 물론 이와동시에 솔루션 공급자를 확보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서버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오롱정보통신은 고객만족 차원에서 최종 소비자 및 리셀러, 시스템 엔지니어, 솔루션 공급자를 대상으로 제품에 관련된 솔루션 교육 및 기술지원, 차별화

된 AS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코오롱정보통신은 기존 코오롱하이테크 플라자 유통망을 중심으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인데 네트워크 서버 솔루션 공급업체에도 적극 발굴하여 영업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코오롱정보통신이 공급하게 될 System S401은 LAN 통합을 필요로 하는 환경을 위해 최대 4개까지의 펜티엄 프로세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Bus 구조 또한 2중(PCI Bus, EISA Bus)으로 설계하여 제품의 성능을 두배로 향상시켰다. 각 프로세서에 전용 Cache를 제공하여 Cache 메모리 간의 충돌을 제거,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했다. System S10은 화일/프린트와 LAN응용환경, 분산처리환경이 이상적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확장성과 호환성이 뛰어나며 PC와 통신이 통합된 보급형 네트워크 서버다.

교보정보통신

금융정보시스템사업 본격화,
독일KT 단말기 수입

교보정보통신은 독일의 지멘스 닉스롤프(SNI)사와 정보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금융 및 유통정보시스템 사업에 본격 참여했다.

교보정보통신은 지난 6월 17일 태국 및 방콕 현지에서 이장규 사장과 악셀 하스(Axel Hass) 지멘스 닉스롤프 아시아, 호주지역 총괄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셀프서비스 시스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 등의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

했다. 이번에 교보정보통신이 공급하는 지멘스 닉스롤프사의 셀프서비스시스템은 금융기관 및 유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단말기로 상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이 즉석에서 상품을 예약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 정보자료의 프린팅까지 가능하다. 또한 SMI사의 ATM기기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정보서비스와 필요한 자료를 프린트 할 수도 있는 멀티미디어 터미널이다.

교보정보통신은 이들 시스템에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는 애플리케이션과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개발, 금융기관과 유통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기금 202개사에
888억지원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분야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실시되는 정보화 추진기금 제도의 96년 2차분 사업인 국책연구개발과 멀티미디어 산업 지원사업의 대상업체가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국책연구 개발 사업으로 국산전자교환기(TDX10) 개량모델개발등 9개 분야에 1백65개 업체 7백81억원 멀티미디어 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간 협력사업 지원등 2개 분야에 37개 업체 107억원등 총 2백2개 업체에 8백8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정보화 추진기금은 중소기업 중점 지원 방침에 따라 지원 대

상 1백98개 업체중 94.7%인 1백88개업체에 대해 총지원금액의 82.2%인 7백30억원이 집중됐다.

또 취약 분야인 멀티미디어 분야에 2백36억원, SW분야에 2백18억원, 방송분야에 49억원을 지원하고 개인휴대통신(PCS)와 발신전용휴대전화(CT2)등 신규 허가대상사업 소요장비 기술개발에 총 1백86억원을 배당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대출 이자율 연 6.5%, 대출기간 최대 5년의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인 연 6.0% 대출 이자율이 적용된다.

한국통신

PCS자회사 연내 설립, 97년 10월 시범서비스

한국통신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를 올해 안에 설립, 내년 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발신전용휴대전화(CT2)서비스는 올 하반기에 서울과 대전에서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6월20일 한국통신은 자본금 5천억원 규모의 자회사를 연내 설립하고 서비스 개시 3년 이내에 인구대비 98.9%에 해당하는 서비스 보급률을 실현해 2002년경 1조3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무선통신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통신이 밝힌 분야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PCS의 경우 97년 10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98년 1.4분기 중에 서울·인천·경기·부산 등 수요밀집 대도시에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며 99년에는 기타 광역시·도청소재지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확대해 2000년에는 전

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은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한국통신은 2002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해 관련장비를 경쟁개발방식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으로 올 9~10월경에 개발제품 평가 및 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11월경에 상위 2개 업체를 장비공급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공중전화망·종합정보통신망(ISDN) 및 지능망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해 98년에 5백여개, 2002년까지 1천7백개의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PCS사업을 전담할 자회사는 5천억원 규모의 초기자본금으로 올해 안에 설립키로 했다. PCS자회사의 지분구성은 한국통신 본사 33.33%와 본사 직원 및 관계협력기관 17.67%를 합쳐 한국통신 측이 51%를 소유하고 PCS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중소기업군에 33%를 배정하며 유통전문업체·금융기관·광고업체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나머지 15.67%의 지분을 배정키로 했다. 여의도에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발신전용휴대전화(CT2)사업은 하반기에 서울과 대전에서 상용화한 뒤 97년에 서울 및 수도권·광역시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99년까지 전국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총 3천억원을 CT2 설비구축에 투자, 올해에 1만2천여개의 기지국을 설치하는 데 이어 99년까지 총 3만6천여개의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R-J-K 광케이블 유지보수 협정 체결

러시아-일본-한국을 잇는 RJK 광케이블 전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가 일본 KDD社에서 한국통신

(KT)의 자회사인 한국해저통신으로 이관됐다.

한국통신은 지난 6월27일 부산 하얏트호텔에서 RJK담당 업체인 KDD, RT, DRTG 등과 RJK유지보수협정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지난 7월4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지난해 1월 개통된 이후 일 KDD가 맡아 온 RJK해저 광케이블(총연장 1천7백61Km) 전구간에 대한 유지보수업무가 올해 4월1일부터 소급 적용돼 한국통신이 맡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계약기간 3년동안 연간 1백만달러의 선박대기료와 케이블 고장발생시 고장수리비 등을 RJK케이블 당사자로부터 받게 된다.

한국통신은 RJK케이블 유지보수를 위해 3천톤급 케이블선박을 덴마크 TDI사로부터 2년간 임대하고 케이블 매설장비 및 신규선박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RJK케이블 외에도 국내해저케이블과 APCN, FLAG 등 국제 해저 케이블의 한국구간 유지보수권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IBM

OS/2워드 무상 공급

한국IBM은 한글과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인 「한글 3.0b」 OS/2 워드버전을 개발함에 따라 이를 다음달 초부터 OS/2 정품 사용자들에게 무상공급한다고 지난 6월 14일 밝혔다.

국내에서 상업용 워드프로세서를 하드웨어에 번들해 판매한 경우는 많았으나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한국IBM이 처음이다.

한국IBM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95」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는 취지에서 한글3.0b 무상 공급 계획을 수립, 현재 긍정적인 방향 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OS/2용 한글은 한국IBM과 한글과컴퓨터 양사의 제휴해 개발된 제품으로 그림그리기, HTML 문서호환, 영한사전, 하이퍼텍스트 등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달 SEK 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PC통신

접속회선 2천4백개 증설

한국PC통신은 하이텔 서비스의 주이용층인 학생들의 방학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 접속회선을 2천4백개 증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총3천회선을 증설할 계획이다.

한국PC통신은 이를위해 지난 7월17일 하이텔 사용자들이 많은 「01410망」 2천회선과 인터넷 인바운드 전용회선 4백회선등 총2천4백회선을증설하고, 2단계로 7월12일 까지 전주와 수원지역 전용회선 3백40회선을 늘릴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초고속 시험 서비스, ISDN, COLAN, 단체가입자(CUG, SUG 등) 전용으로 2백60회선을 증설하기로했다.

이번 회선 증설로 하이텔은 국내 최대 규모인 총 1만3천회선을 보유하게 됐다.

LG정보통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시스템 개발

LG정보통신은 일본 JAL DATA통신사와 기술협력을 통해 아웃바운드 전용 텔레마케팅 시스

템인 「LG 콜」을 개발, 본격 공급한다고 지난 7월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고객문의에 응답하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시스템과는 달리 컴퓨터에 입력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사전에 확보된 프로그램에 따라 각종 조사 및 판촉업무를 수행하는 아웃바운드형 텔레마케팅 시스템이다.

컴퓨터 본체와 콜링 박스·헤드셋 등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작성기능을 비롯해 신규 프로젝트 입안 기능, 데이터 분석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양SHL

동양생명 170억규모 CS시스템 구축

동양SHL은 동양생명보험에 총 1백70억원 규모의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을 구축, 8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양생명보험이 그동안 운용해온 중앙집중식 전산시스템을 분산처리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본사와 전국 5백여개의 영업소를 총 20대의 서버와 1천3백대의 클라이언트 기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동양SHL은 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동양생명 본사에 근거리통신망 및 원거리통신망을 구축, 중앙서버의 통합, 시스템 개발 및 관리 환경,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등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구축했으며 청약서 처리시스템, 보험금지급시스템, 고객서비스시스템, 대출시스템등 총12개 분야를 전산화했다.

동양생명보험은 이시스템의 구축으로 자료중복, 고객지원 부족, 과다한 유지보수료 등의 문제점을

해결, 연간 5백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전자

한국TRS 아날로그 전국망장비 수주

현대전자가 주파수공용통신(TRS)전국사업자인 한국TRS의 아날로그 전국망장비 공급권을 획득했다.

지난 7월 3일 현대전자는 한국TRS가 전국망 서비스를 위해 서울·강원·충북 등에 설치하는 총 30억원 규모의 장비공급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전자가 이번에 공급할 장비는 미 E F 존슨사의 아메리콥시스템으로 △원격감시기능 △시스템 복원이 가능한 이중화기능 △통화 시간 조절기능 △통화통계자료 출력기능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한편 한국TRS는 오는 9월말까지 장비설치를 완료하고 연말부터 TRS 상용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현영씨시스템즈

외환은 외화자금관리시스템 구축

현영씨시스템즈는 외환은행에 외화자금관리 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영씨시스템즈가 외환은행에 구축한 외화자금관리 시스템인 「KITS」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중장기 차입, 외화ALM등 외화 자금관리 전반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가동으로 외환은행은 외환딜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얻을수 있으며 장·단기 외화자금 조달및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심데이터시스템

부산 관광 홈페이지 구축

농심데이터시스템이 부산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농심데이터시스템이 개발한 부산 관광 홈페이지인 「허심청」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온천탕인 「허심청」과 동래관광호텔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여행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산 관광지 안내, 교통, 쇼핑안내등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허심청」은 「퀵타임 VR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 각종 화면을 현실감있게 구성했으며 각 화면마다 광고 및 홍보 애니메이션 기능을 삽입, 다채로운 화면을 즐길 수 있다. 허심청의 인터넷 주소는 <http://ndsweb.nongshim.co.kr>

데 이 콤

종로구청과 복지뱅킹서비스 계약

종로구의 노인교통수당 등 복리후생비가 복지뱅킹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일괄 지급된다.

데이콤은 지난 7월8일 종로구청과 복지뱅킹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10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과 산하 21개 모든 동사무소는 매월 또는 명절등에 복리후생비를 수혜자의 계좌로 자동이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뱅킹서비스는 동사무소 시청 등 각급 행정기관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PC를 통해 은행이나 우체국의 수혜자 계좌로 이체하고 그 처리결과까지 조회할 수 있는 EDI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로구청에서 징수하는 2백10개 세외수입 DB와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를 연계 처리해 현금지급시의 불편함을 제거함은 물론, 수작업에 따른 오류도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

대우정보시스템

대학정보화 사업 강화

대우정보시스템이 대학정보화 사업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현재 아주대에 구축중인 종합정보시스템인 「AIMS」를 모델로 삼아 대학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중인데 최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1백50여개 대학의 총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보시스템 시연회를 개최, 호응을 얻었다.

대우가 아주대에 구축중인 종합정보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원서 접수 및 취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 인사 예산 경리회계 시스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학내 인트라넷및 홈페이지 구축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우는 최근 동국대의 종합정보시스템을 수주하는등 대학 정보화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우정보시스템 대학시스템부 조성현 부장은 『데이터의 단순한 처리및 저장보다는 사용자인 교수, 학생, 학교 당국자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는 고객만족 개념을 적용해 최첨단의 대학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수주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정보통신

'97 동계U대회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VAN 마케팅 강화도

'86아시아게임 및 '88서울올림픽 대회관리시스템(SOMS)을 개발, 운영했던 쌍용정보통신이 오는 '97년 1월에 전북 무주와 전주에서 개최되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운영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최근 완료, 시험운영을 성공리에 마쳤다.

지난해 7월 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던 SICC는 경기운영시스템, 대회관리시스템 및 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등 세 분야 총 700여종에 이르는 관련소프트웨어와 경기장/선수촌/공항 등의 상호연계망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빙상, 스키 등 세부 종목의 진행과 함께 인력 및 숙박, 수송, 입장권관리, 그리고 경기결과와 일정 등 대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쌍용은 또 최근 '쌍용네트'를 통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의 활성화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다.

SICC는 이를 위해 최근 쌍용네트를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프레임 릴레이망으로 확대했으며 완벽한 A/S체계의 구축을 위해 통신망 장애의 각종 원인과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장애처리시스템'과 고객사별 A/S 전담 사원을 지정하는 'A/S실명제' 및 'A/S 전담기동반'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SICC는 고객들의 통신망 선택에 보다 정확한 사전정보의 제공을 위해 업계 처음으로 고객들이 계약이전에 통신망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제도의 시행과 함께 통신망의 품질을 고객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네트워관리시스템(NMS)도 제공하고 있다. ◆